ijournalist.co.kr -



일간 인터넷판 제232호 TEL 032-433-8081



## 박용철 강화군수, '민주평통 토론회 등 광폭 군정' 소화

## 통일준비 여성리더 역할 초청해 논의 군.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

박용철 강화군수는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 여성 리더 초청 통일공감 토론회와 강화 군 고위직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행보를 이어갔다.

2024년 11월 28일 (목)

박 군수는 지난 27일 강화읍 에 버리치 호텔에서 '여성리더 초청 통 일공감 토론회'를 개최했다. 강화군 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.

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,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,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여성자문 위원, 강화군 여성리더,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.

토론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 단 박은주 교수를 초청해 '통일준비 를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과 과제'를

주제로 참석자들과 합동토론 및 질 의 응답시간을 가졌다.

김경호 협의회장은 "여성리더들 의 교류와 협력,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여성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이와 같 은 자리를 준비했다"고 말했다.

박용철 강화군수는 "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군민들이 큰 심리적 불안 과 고통을 안고 있다"라며 "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지 혜로 대처해야 한다"라고 밝혔다.

그러면서 "여성리더로서 그 통찰 력과 리더십으로 흔들리지 않는 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데, 일조해 달 라"고 당부했는데 이어진 일정을 위 해 강화군 고위직 4대 폭력 현장으 로 이동했다.

박용철 군수는 군청 진달래홀에

도착하여 고위직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 폭력(성희롱・ 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 교 육의 장에서 성평등에 지대한 관심 을 보였다.

강화군은 성 평등은 조직문화를 위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, 성인지 기반의 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고위직 대상 4 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워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 안명 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장을 초빙 하여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다.

'언제나, 어디서나 성 평등은 온 (ON)하다!'라는 주제로 △성희롱· 성매매 · 성폭력 · 가정폭력의 개념 이 해 △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△관리 자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의 내



용으로 진행됐다.

강화군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고위 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4대 폭 력 예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관리 하고 있다.

박용철 군수는 "다양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성 평등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환경

을 만드는 데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 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"라고 강

한편, 박 군수의 광폭 행보는 10 대 강화보궐 선거로 당선이 되어 취 임하자마자 이어가고 있는데 빡빡 한 일정에도 강화군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*/*문미순 기자

## 인천 특사경. '계양·서구.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' 적발

불법 건축·무단 토지 형질변경·불법 용도변경 등 17건

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 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 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 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.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,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, 무단 토지 형질변경, 불법 물건 적치, 죽목 벌 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.

이에 대해 "불법 건축 8건,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 위를 적발했다"라고 밝혔다. 개발제 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 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 치할 수 있지만,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.

주요 적발 사례로는 귤현동 A씨 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 고 및 사무실로 사용했다. 검암동 C 물 설치, 토지 형질변경, 죽목 벌채, 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



형질을 변경했고, 백석동 D씨는 컨 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 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.

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 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,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 치할 예정이다.

면, 허가 없이 건축·용도변경, 공작 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 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 밝혔다.

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 과된다.

특히,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
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"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 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"이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 라며 "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/문미순 기자

## '국내 정상급 아티스트' 총집결

인천시. 2024 멜론뮤직어워드 30일 막 오른다

인천시는 국내외 최정상 아티 스트가 11월의 마지막 날 인천으 로 집결하는데 2024 멜론뮤직어 워드(MMA 2024)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.

한편 '멜론뮤직어워드'는 음악 플랫폼 멜론의 데이터와 전문가 심사, 이용자들 투표를 통해 수상 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 모의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.

이번 행사는 "카카오엔터테인먼 트가 주최하고. 인천광역시와 인 천관광공사가 후원"한다. 2005년 온라인으로 시작해 2009년부터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개최해 왔다.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천 영종의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 에서 개최됐는데 올해 행사의 슬 로건은 '뉴 스트림 오브 케이-팝 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새 흐름을 제시하는 비전을 담았다.

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올해 행사에는 중국, 일본, 동남아 등 2000여 명의 해외 관객을 포함, 약 1만 2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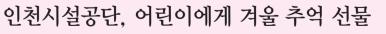
또한,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 (여 자)아이들, 에스파(aespa), 라이 즈(RIIZE), 아이브(IVE) 등과 해 외 아티스트로 덴마크 팝스타 크 리스토퍼(Christopher), 일본 대 세 유닛 요아소비(YOASOBI) 등 이 최종 라인업에 포함돼 국내외 K-POP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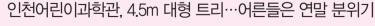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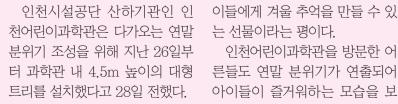
고 있다. 국내에서는 멜론 앱과 웹,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, 일본은 유-넥스트(U-NEXT) 에서 실시간 중계한다.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에서는 원더케이 (1theK)와 멜론 유튜브 채널로 즐길 수 있다.

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"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시상식인 '2024 멜론뮤직어워드 (MMA 2024)'를 연속 개최로 글 로벌 마이스 선도 도시로 인천의 위상을 강화했다"고 밝혔다. 그 러면서 "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대규모 음악 이벤트를 유치해 도 시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성장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"라고 말했다.

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멜론 뮤직어워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문미순 기자







한편, 과학관을 방문하는 어린 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크리스마 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볼거 리와 포토존을 제공했는데 어린

인천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인 이들에게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

인천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한 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 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욱 느 껴진다고 과학관의 세심한 배려 가 고맙다고 밝혔다.

/문미순 기자